

한국의 성공에서 보는 IT입국으로의 길

시사통신 편집위원

유가와 쓰루아끼(湯川鶴章)

일본의 세계주보는 최신호에서 한국경제의 성공비결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기사 “한국의 성공에서 보는 IT입국으로의 길”을 칼럼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기사를 번역/인용한 것입니다.

→ 상반기 한국기업 수익 ‘사상 최고’

세계주보 2000년 11월 14일자호의 본 연재칼럼 “기술혁명최전선”에서 “일본을 추월한 한국의 IT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IT산업의 활약상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일본 벤처 기업을 취재하면서 “한국은 대단하다”는 말을 너무 빈번하게 들곤 하였기 때문에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간단한 기사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에 “인터넷 보급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IT산업에서 일본을 앞질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비판을 독자들로부터 받았다. 일본을 뒤쫓아 온 한국에게 그토록 간단히 추월당할 리가 없다고 느낀 것이다.

그로부터 또 1년. 일본이 경제재생의 길을 아

직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견실함을 보여주는 숫자가 잇달아 공표 되고 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한국은 통화위기라는 최악의 상태를 다 함께 경험하였으나 그 후 일본과 한국은 어딘가에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성공비결을 검증하여 보기로 한다.

한국증권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510개사(결산기 12월)의 상반기 결산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결산에 의하면, 이들 510개 회사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17조원. 상반기에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였고, 2위는 한국전략공사, 3위는 한국최대의 고정전화회사인 KT였다.

한편 벤처기업들이 모여 있는 코스닥의 발표

에 의하면, 상장기업 712개사의 상반기 결산실적은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2% 증가한 1조 5,000억원을, 매출액이 17.3% 증가한 29조 3,000억원으로 매출과 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호조를 보이는 IT기업이 경기전체를 견인하면서 올 4~6월 GDP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해 지난 98년 6.7%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실업률도 3.1%로 98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일본의 “e-Japan구상”이 목표로 하는 IT산업을 통한 경제부흥을 한국이 먼저 실현한 것이다.

… 신규참여 지원하는 한국정부

일본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IT산업으로 경제부흥을 달성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說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IT입국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시사통신발행의 뉴스 레터 “시사IT정보”에 보내온 가이무라(外村) 전서울특파원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통신부는 고속 인터넷 회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국영전화회사 한국통신을 자극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하나로통신의 이용자가 급속도로 신장되기 시작한데 놀란 한국통신은 서둘러 초고속 인터넷 회선사업에 뛰어들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은 “일본의 행정부서는 기존의 기업을 지키고 신규사업자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많다”고 비난한다. 일본의 행정과 한국의 행정은 정반대인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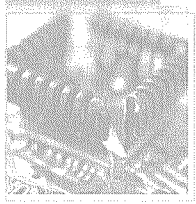
많은 대기업 직원들이 대부분 ‘PC방’을 차려 인터넷 인프라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PC방은 일본에서는 인터넷 카페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처에 존재한다.

한국의 IT정보에 해박한 도쿄해상연구소의 나카무라 마고또(中村誠)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그 숫자가 무려 1만 8,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일본 국내에 있는 파친코 업체의 숫자와 거의 같지만,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파친코 업체 보다 2배나 많은 PC방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에서는 일본문화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가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은 주로 PC방에서 TV게임을 즐기고 그것이 PC방 보급의 한 요인이 됐다는 설도 있다.

이외에도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과 외곽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초고속 인터넷 회선 보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은 전화국의 교환기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교환기와 가까우면 고속데이터 전송이 용이한 ADSL 회선의 보급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높은 국민성도 보급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을 시작한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21.1%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이용률은 초등학생이 88.4%, 중학생이 99.8%, 고등학생이 99%라는 조사결과도 있으며 교사가 인터넷 이용을 장려하는 경우도 많다. PC를 사용할 줄 아는 교사가 적은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규제가 다소 느슨하고 많은 동영상 콘텐츠가 인터넷상에 존재한다는 점 역시 IT라이프스타일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TV 연속 드라마를 놓치더라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 걱정이 없다. 매력적인 콘텐츠와 인터넷 회선 등의 인프라는 토피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IT라이프 스타일은 보급되지 않을 것이다.

→ 일본은 아직도 바닥을 맛보지 못했다

또 앞에서 언급한 나카무라 연구원의 현지조사에서는 ‘빨리빨리’로 불리는 한국인의 성급한 국민성을 초고속 인터넷 회선 보급의 이유로 꼽는 한국인도 많다고 한다. 초고속 인터넷 회선 보급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이지만 그래도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확실히 국민성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런 큰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의 유력일간지인 중앙일보 남윤호 도쿄특파원은 “일본은 아직 밑 바닥 쓴맛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남 특파원은 외환위기 이후 중앙일보에서도 연일 동료사원들이 실적을 했으며 “마치 종전(終戰) 직후의 혼란기 같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때문에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IT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지만 정말 더 깊은 바닥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는 한 재생이 불가능한 것일까?